

생태탐방·수변데크...남녀노소 즐거운 세대융합공원 다양

‘공원 도시’ 광주

<5> 복구의 도시 공원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북구는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종류의 공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

북구는 특히 광주 5개 지자체 중 어린이 공원의 수가 가장 많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즐기기 위한 어르신들의 니즈를 고려한 맨발 산책로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 북구 운암제, 양산제 등 도심속 소규모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이 많아 일명 ‘호숫가(호수를 품은 아파트)’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공원도 조성돼 있다.

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에는 총 116개의 도시공원(근린공원 13개, 어린이공원 90개, 소공원 7개, 문화공원 1개, 묘지공원 3개, 체육공원 2개)이 있다. 총 면적은 445만 1806㎡에 달한다.

북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는 ‘북구 8경’ 중 하나인 중외근린공원 내에 있는 ‘중외공원(운암동)’이 꼽힌다.

주변 관광지로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이 있어 산책 외 다양한 문화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봄철 ‘벚꽃 터널’로 유명한 본촌 근린공원(양산동)은 양산제를 품고 있어 양산호수공원으로도 불린다.

과거 양산동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양산제는 인근에 공단과 택지가 개발되면서 그 역할을 상실한 이후 공원과 사업 재정비로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양산강 상류 방향으로 숲길이 조성된 광주시민의 숲(월출동)은 대구와 달빛동맹의 상징으로 광주와 대구에 각각 조성됐다.

광주시민들의 숲은 여름이면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황토 마사로 포장된 맨발 걷기 산책

총 116개소 445만㎡ 공원 조성
숲놀이터·야영장 등 인프라 다양
운암산·일곡 근린공원 등 조성
어르신 위한 맨발 산책로 확충도

로(생태탐방 숲길), 야영장이 있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다.

인공호수와 수변데크, 인공섬 등이 마련된 본촌 생태어린이공원(본촌동), 일곡초와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들샘어린이공원(일곡동), 농구코트와 원목 놀이기구 등이 있는 용봉 중앙 어린이공원(용봉동) 등 어린이공원도 90곳에 달한다.

북구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12월을 목표로 4개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이별달 준공되는 신용근린공원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까지 중외근린공원과 운암산근린공원, 일곡근린공원이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다. 도심 속 녹지공간인 중외근린공원은 193만 7301㎡, 총 167억원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공원 사업으로, 4개 테마지구(박물관지구, 비엔날레지구, 어린이대공원지구, 연제·동운지구)로 구분돼 공원 부지 내 다양한 문화예술인프라와 어우러진다.

운암산 근린공원(33만 7920㎡)과 일곡 근린공원(101만 3344㎡)은 각각 2025년 8월, 2026년 12월 완공 계획이다. 운암산 근린공원은 운암산과 양산강을 가로지르는 연결육교가 있고, 일곡 근린공원은 자연마를 돌레길이 조성돼 있으며 한새봉과 매곡산을 잇는 연결육교를 통해 자연을 마주할 수 있다. 양산강대상(서구·북구·광산구 양산강변), 우산동(136,050㎡), 본촌(7만 1555㎡), 양산(1만 5434㎡), 신용(2만 7869㎡) 등에도 재정공원이 들어선다. 현재까지 양산강 대상과 우산동을 제외하고 모두 토지매입을 마친 상태.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글로벌정책연구원, 광주를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

개원 기념식·정책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글로벌정책연구원(연구원)이 광주를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구원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서의 광주’라는 주제로 개원 기념식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1부 기념식에는 양부남(광주 서구청)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과 정진욱(동남갑), 조인철(서구갑), 정준호(북구갑), 박군택(광산갑)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민석·한준호·김병주·이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보내는 등 중앙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2부 정책 토론회는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서의 광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동기 글로벌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광주의 희망을 그리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며 “개원식과 정책 토론회를 통해 연구원이 지역의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9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각계 현장 전문가 영입, 기본사회 모델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인제 양성 프로그램 상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9일 여수 전용부두에 정박한 병원선(전남 511호)을 방문, 진료실 시설·장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한덕수 총리, 전남 병원선 방문...열악한 전남 의료 현실 청취

김영록 지사, 의료 개선 건의·조세특례제한법 조속 처리 요청도

“지역민이 거주하는 전남지역 섬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에 이릅니다.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선 운영 뿐 아니라 지역의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열악한 전남지역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9일 전남

을 방문한 한 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 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병원선 유류비는 전액 예외로 운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덕수 총리 등과 병원선을 둘러보는 한편, 광양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광

양미래여성병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또 의과 공중보건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 및 착륙장 확대, 어북버스 시범사업,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5개소) 등 취약지역 의료 지원 대책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외 전남 국립의대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 방문진료 수가 확대도 건의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민주당 시당, 지역 현안 해결 힘 모은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TF 구성 등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담팀(TF)을 통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등 광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 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안건 해결을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정진욱·안도걸·정준호·전진숙·박군택·민형대 국회의원, 5개 자치구 청장,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군공항 통합 이전은 민주당 광주·전남 상생발전 TF 구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기대가 크다”며 “정부 차원의 범정부협업의 체 운영도 재개되는 만큼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주요 안건으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도시철도 광전상무선 신속 추진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산 확보 ▲책과 진한 도시 광주,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국회 주관 2025 전국 지방정부 정책박람회 개최 ▲친환경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폐기물 수송로 가산금 인상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운영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복합쇼핑몰 관련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의원들은 사·구의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집행부는 의정·의회 활동을 통해 생각해 낸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

노동권익센터 운영기관 모집

시, 노동 관련 3개 센터 통합

광주시는 “오는 10일까지 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청소년인권노동센터 통합 기관인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서 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노동 분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기타 사항을 확인한 뒤 오는 9~10일 제출 서류를 구비해 노동일자리정책관실 노사상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 역량 및 전문성, 예산·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은퇴이양 직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검색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농지연금사업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 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매도조건부 임대 시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